

함께하는 **FTA**

March 2013
www.ftahub.go.kr | vol. 10



급변하는 무역 환경, 한국의 선택은
통상 '레벨 업', FTA '파워 업'
한·미 FTA 1주년을 말하다



Celebrate the KOREA·US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은
튼튼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고, 외교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정치,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관계가 발전되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1주년을 축하합니다.

1
YEAR



FTA 배우는 재미에 빠진 예비 무역전사의 이야기 “세계를 누비는 미래 한국의 무역전사가 될래요”

김혜진 성신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 83기 수강생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11학번) 김혜진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인데 벌써부터 취업 준비나가요? 요즘 그런 얘기 대학생에게 하면 '한가한 소리 한다'는 말 듣기 일쑤입니다! 2학년만 마쳐도 어학연수 다녀와야죠, 토익 준비해야죠, 할 일 이 태산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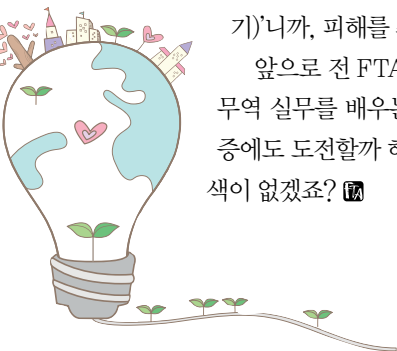
그럼 스펙을 쌓기 위해 무역실무특강을 듣는 것이냐구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무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들으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 같군요. 제가 무역에 관심을 가진 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유망 직업으로 무역업을 권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정말 친한 친구분이 무역관련 공기업에 다니셨는데,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무역을 개척하시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나봐요. 게다가 “넌 여자이니 무역업을 하면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으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를 꾸준히 설득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친구분이 그러시는데, 해외 근무한 여직원이 굉장히 많대요. 남자들의 전쟁터인 국내영업은 여자들이 하기에 티프한 면이 있지만, 해외영업은 콘텐츠로만 승부하니 여자들에게 괜찮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대를 다녀서 그런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커리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무역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방학을 맞아 이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늘 꿈꾸던 분야를 처음으로 접해서 그런지, 저는 열흘 간 이어지는 60시간의 수업이 너무나 재밌었었어요. ‘아, 무역이란 게 실제로 이렇게 이뤄지는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 들은 지 9일째인 오늘 마침 ‘FTA 원산지 실무’를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FTA에 대해서 잘 몰랐고, 뉴스를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FTA를 배우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 FTA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FTA를 알게 되니, FTA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농업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FTA는 ‘기브 앤 테이크(주고 받기)’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전 FTA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무역 실무를 배우는 재미에 빠진 김에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도 도전할까 해요. 이만하면 미래 한국의 무역전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정리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 01 FTA 캠페인
FTA 배우는 재미에 빠진 예비 무역전사의 이야기
- 04 인트로 칼럼
신 FTA냉전시대...스마트 FTA 필요해

커버 스토리

급변하는 무역 환경, 한국의 선택은
통상 '레벨 업', FTA '파워 업'

- 06 통상 4.0 시대의 도전과 과제
FTA, 양(量)에서 질(質)로 진화해야 한다
- 08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와 대응
통상분쟁 10년 내 최고...보호무역 주의보 발령
- 10 FTA의 확산과 중소기업 경쟁력
중소기업 활용도 커져야 FTA 효과 본다
- 12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경제영토
- 14 특집 인터뷰: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우리의 앞선 농업 기반 기술, 해외에 알려야죠”



06



18



38

표지 일러스트 허라미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3월 5일(통권 10호)
발행처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발행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8

스페셜 리포트
한·미 FTA 1주년을 말하다

- 28 한·미 FTA 1주년의 평가와 과제
글로벌 위기에도 FTA 효과 견고했다
- 30 미·EU FTA 협상으로 본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 제조업·수출 강화 위해 팔 걸었다
- 32 미국에서 맞이하는 한·미 FTA 발효 1주년
문턱 높던 미국 정부조달 가능성 높아져

FTA 통신
3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 1주년 맞아
9,000건 이상 상담, FTA 애로해소 성과 뚜렷

FTA 아카데미
34 FTA활용 탐구생활: 부가가치기준의 모든 것
'공제법'이 가장 간단, 유럽은 MC법 따라야

FTA 뉴스
36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 등

컬처 윈도우
38 스마트 세상의 새로운 힘, 모바일 한류

별별랭킹
40 수출 강국들의 세계 1위 수출 품목 수는 몇 개?

- FTA 즐기기
- 16 한·EU FTA 검증 사례 분석
세번 분류, 애매하면 수입국에 확인하라
 - 17 카툰
위기 극복, FTA가 열쇠입니다
 - 18 충북FTA활용지원센터
해외 시장 개척단 추진...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앞장
 - 20 중소기업 천하: 임진에스티
풀리지 않는 너트로 세계 시장 '넘버 원' 노린다
 - 22 FTA 유관기관 탐방: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사후검증 대비하세요
 - 24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수상자들의 FTA 난상토론
“막연한 반대는 적극적 소통으로 극복해야”
 - 26 FTA 유망 직업: 수입과일 바이어
임영호 이마트 신선담당 과일 카테고리 과장
 - 27 FTA지상중계
한국 업체 디섹과 미국 업체 나스코의 FTA 공동 컨설팅 현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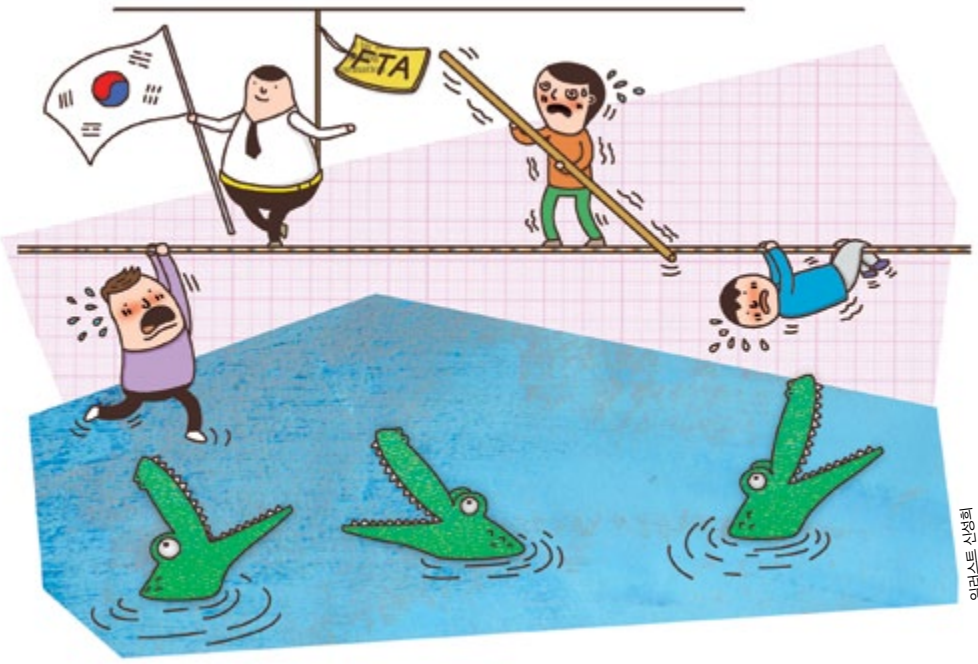


28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한국의 선택은

신 FTA냉전시대...스마트 FTA 필요해

글 |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
이제 세계는 이른바
FTA 연방 간의
신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개별국가와의
FTA에 치중해 왔던
우리나라는 이제 다자
FTA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재무장과 엔저,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주고받는 빅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결과를 내야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머지않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GDP의 38.6%(일본 참여시)가 되는 FTA가 태평양에서, 세계 GDP의 45.2%에 달하는 FTA가 대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서 중국도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 FTA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이고, 이에 자극받은 세계 각국들도 앞 다투어 다자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 이제 세계는 이른바 FTA 연방 간의 신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TPP와 TTIP 협상을 동시에 성공시킨다면 그 영향력으로 보아 세계 통상질서는 전면 재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시장에서 EU 및 일본과 무관세로 경쟁해야 하고, EU 시장에서도 미국과 무관세로 경쟁해야 한다. 이는 곧 미국시장이나 EU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체결한 FTA의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기간이 2~3년에 불과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처음 FTA를 체결했던 칠레 시장에서 FTA 선점 효과를 향유한 기간은 중국과 일본의 뒤이은 FTA로 인하여 4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개별국가와의 FTA에 치중해 왔던 우리나라는 이제 다자 FTA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다자 FTA에도 전략적으로 참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 FTA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다자 FTA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논의 중이거나 경쟁중인 한·중·일 FTA, EAFTA, RCEP, TPP, FTAAP 등 다양한 다자 FTA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실효성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FTA의 협상원칙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의 FTA 협상원칙은 ‘투 레벨’로 대외적으로는 상대국 정부와 협상하고, 대내적으로는 국회 등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와 협상하는 양면협상 전략인데, FTA에서 국익을 획득하는 주체인 기업이 협상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FTA 협상이 끝나면 협상에서 경험과 노하우, 정보들이 기업에 전수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FTA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도 협상하는 ‘쓰리 레벨’ 협상원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FTA의 추진 목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약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존 FTA 추진 목표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서비스 활성화, 가상재화 수출, 농업 수출산업화, 관광객 유치 등도 FTA 추진 목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FTA를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1세기는 초국가적인 상생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논의되고 있는 공적원조인 ODA, 기후변화와 국제환경 분야에 대처하는 녹색기후기금인 GCF 등과도 연계하여 FTA를 추진함으로써, FTA를 통한 국익추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여 우리의 국격까지 높이면 좋을 것이다.

FTA 대내외 대책, 스마트하게 연계해야

내부적으로는 우선 기존 FTA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투입→산출’의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최대 되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정하는 스마트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현재 주로 제조업 위주의 정책 지원을 앞으로는 FTA 협정에 개방되어 있는 서비스, 지식, 문화, 융합, 복합 산업 등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최근 FTA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물류, 유통, 금융, 플랜트 분야부터 FTA 활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의 FTA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뜻함)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 유관기관이나 단체, 지자체등은 거의 비슷한 FTA 지원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수혜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비슷한 지원은 하나로 줄이고, 기관별로 특화된 지원책을 기업의 FTA활용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번째로는 FTA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FTA 교육이나 컨설팅을 특정 분야 또는 이론 위주에서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FTA는 학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상대국 정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해, 각 산업분야에 부합하는 현장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개발, 교과서 집필, 콘텐츠 제작, 컨설팅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FTA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FTA를 기능적으로 분류해보면 연구, 협상, 입법, 정책, 보상 등 지원기능인 업-스트림(Up-Stream)과 활용, 교육, 출판, 컨설팅, 시스템, 컨퍼런스, 네트워크 등 실행기능인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FTA 관련 창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TA 자체를 산업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외·대내 대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FTA 네트워크 확산으로 인하여 이제 국경이 소멸되고, 세계는 개별국가 간 경쟁시대가 아닌 FTA 연방 간 경쟁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E]

통상 4.0 시대의 도전과 과제

FTA, 양(量)에서 질(質)로 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을 통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다. 일찌감치 개방을 통해 수출에 적합하도록 경제 체질을 단련해 온 것이 그 같은 성장을 일군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국은 GATT, UR, WTO, FTA 등 자유무역 질서를 적극 활용했고, 가장 큰 수혜자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속도보다는 밀도를 높여 나가는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국민들이 FTA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 통상 환경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글 |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을 통상을 빼곤 설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구상 200여 국가 중 무역규모 8위, 무역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국가이고, IT, 가전제품,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에서 우수한 글로벌 기업을 가진 나라이다. 1997년 미증유의 외환위기 대란을 극복한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것도 내수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무역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상은 먼 길을 지나왔다. 1967년 GATT 체제 가입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무역주도형 경제 성장을 시작하던 통상 1.0 시대, 1980년대 미국의 통상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UR)의 개방 파고를 겪으면서 소비자 후생,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는 개방체제로 변모하던 통상 2.0 시대를 넘어, 지난 15년은 WTO도 하라운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

로 FTA를 체결하여 한국의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던 통상 3.0시대였다.

경제영토 확충은 통상 3.0시대의 지상과제였다. FTA체결이 비교적 늦었던 한국은 지금은 거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 EU 등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한 FTA 선도국가로 비약했다. FTA 체결국들의 GDP를 합치면 세계 GDP의 57.8%(2011년 명목 GDP 기준)나 될 정도로 경제영토도 크게 확장됐다. 경쟁국인 일본, 중국이 미국, EU와는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성과는 더욱 빛난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FTA 체결 건수만 늘리는데 급급하고 FTA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산업계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열린 공청회는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통과외 레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그러하다.

중소기업과 소비자도 FTA 혜택 누려야 해

이제 한국은 통상 4.0 시대에 들어섰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무역과 내수를 모두 중시하는 쌍끌이 경제 비전을 표방하고 나섰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과 통상, 국내대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조직을 개편하게 된다. 통상 4.0의 핵심은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통상역량을 어떻게 극대화 하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이며 포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로 집약된다.

통상 4.0 시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FTA 로드맵 2.0을 그려야 한다. 그동안의 FTA 정책의 빛과 그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FTA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로드맵 2.0의 핵심은 실효경제영토의 지속적 확보와 유지이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수혜자가 되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 통상지도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 끊임 없이 변화한다. 미국과 EU가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내에 타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일본은 전격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이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루어 낸 미국, EU와의 FTA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FTA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TPP 가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이 잘 돼야 수출기업과 연계된 내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경제영토 확대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 분업 패턴이 형성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는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적극적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수준 높여야

둘째, FTA 활용도를 높이는 진흥정책과 동시에 개방의 효과가 소비자의 실질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담합적 구조를 개혁하고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47개국과 10건(발효 8건)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를 세계 GDP의 57.8%까지 확장했지만, 한국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높지 않다. 수입측면에서 본 한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이하로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률이 더욱 저조한데, 이들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도 FTA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개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산자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고, 정작 FTA의 수혜를 누려야 할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소비자들이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이익은 수입가격 하락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와 다양한 상품의 소비로 인한 후생증대이다. 와인이나 가전제품 등의 사례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방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각 부문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분야의 개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인구 5,000만 명, 저출산·고령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외국자본과 해외 인력, 외국소비자를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강조해 왔던 서비스 내수기반이 살아나기 위한 실천전략의 핵심은 서비스 개방이다.

이를 위해 미국, EU, 한국을 포함한 21개 선진국·개도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서비스 개방의 핵심은 경쟁도입을 통한 혁신이다. 의료, 금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급 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순조롭지 못한 현실을 선진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쟁도입, 경쟁력 강화,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한국은 창조경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와 대응

통상분쟁 10년 내 최고...보호무역 주의보 발령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에 회부된 국가 간 무역분쟁은 총 27건으로 전년 8건 대비 3.5배 증가했다. 이는 2002년 37건 이후 10년 내 최대로 많은 수이고, 증가 건수로도 1997년 21건 증가 이후 최대다. 문제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무역 환경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글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보호무역주의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 간 통상마찰의 증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를 낳고 있고 이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온 수단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이다.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이고,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WTO 협정에 보장된 것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큰 피해가 없을 경우에도 국내 산업 보호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갈수록 증가 추세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2,675건, 상계관세조치는 186건, 세이프가드조치는 118건이다. 반덤핑조치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활발히 사용된 이후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는 감소세를 보여 왔다. 즉 2000년 237건 취해졌던 것이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3년 224건까지 증가한 이후, 2007년 108건이 취해지기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139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2011년 98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상반기에만 74건이 취해져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상계관세조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21건으로 가장 많이 취해진 이후 2007년 2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건, 2010년 19건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만 19건의 조치가 취해져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온 G20 무역제한조치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직후 G20 정상들의 요청으로 WTO가 약 6개월 간격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2009년 9월 발표된 1차 보고서에서는 직전 6개월간 총 80건의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보고한 후, 2011년 초와 2012년 초에는 각각 122건과 124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2012년 말에는 71건으로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보호무역 흐름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WTO의 모니터링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우선 이 모니터링의 대상국이 G20 국가에 한정된 것이고, 대상이 되는 조치도 WTO 협정의 위반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준에 취해져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보호무역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취하는 외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집계하는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lobal Trade Alert)라는 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2012년 6월)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총 1,878건 취해졌으며, 2011년 11월 이후에만 361건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확산 대비 위해 FTA 적극 활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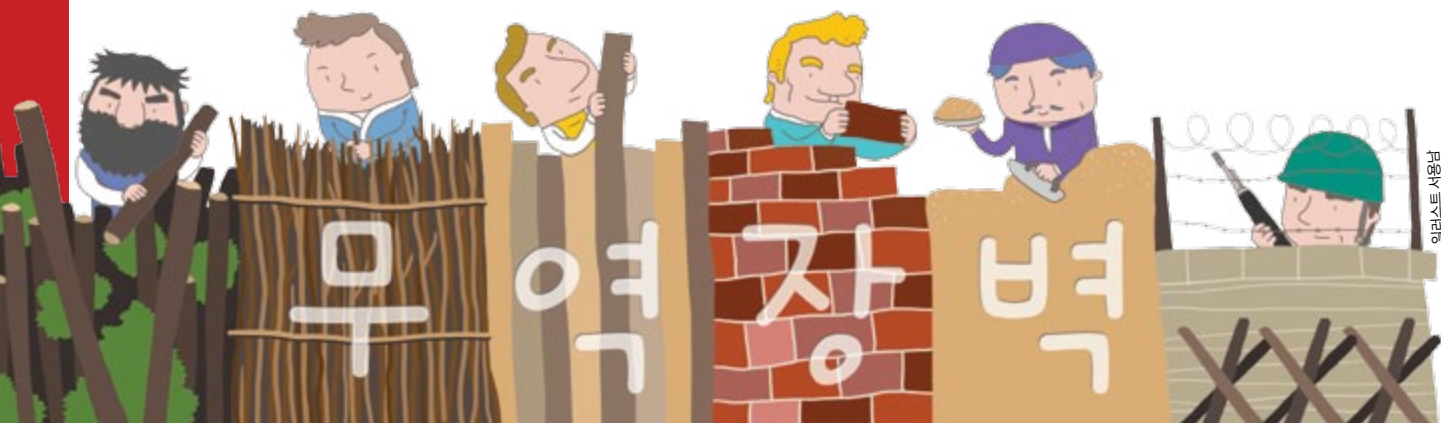
문제는 2013년에도 위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및 연방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문제, 유럽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같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나, 2008년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재현될 가능

성은 낮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회복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주가와 같은 경기선행적 성격의 각종 지표와 달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본격화되고, 이것이 2012년에 확인된 것이다.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더라도 그 속도가 더뎠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보호무역주의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호주의적 입법이나 행정조치 동향을 입수하고, 이를 관련 산업계에 전달하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이 먼저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조사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대응해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보만 채택되는 등 역올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출선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미 선진 경제권의 수요부진으로 인해 해당국으로의 수출 시장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의 확산은 우리 기업에 설상가상의 형국이 된다. 다행히 최근 콜롬비아와의 FTA가 서명되었고, 터키와의 FTA도 양국의 국내 비준을 마무리하여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어, 두 나라를 합친 1억2,000만 명의 시장이 새로이 열리는 것은 봄을 맞기 전 내리는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상품을 대상으로 세 번째로 많은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터키와의 FTA에서는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강화해 해당 조치 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FTA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지원을 약속한 만큼, 모쪼록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에 의해 FTA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은 세분화하고, 창구는 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FTA의 확산과 중소기업 경쟁력

중소기업 활용도 커져야 FTA 효과 본다

EU·미국 등 거대 시장과의 FTA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FTA의 필요성과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초보 단계의 교육·설명회를 떠나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에 맞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출에 집중된 지원뿐 아니라 수입 시에도 FTA를 활용해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글 |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초 내놓은 '2012 중소기업 위상 지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중소기업은 31만4,527개가 증가하고, 358만1,84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312만2,332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226만2,535명으로 전체 고용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모든 기업은 FTA 가치 사슬에 포함돼

특히 한국이 전 세계 경제영토의 57.8%(2011년 명목 GDP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FTA는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97%로,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만큼 FTA의 활용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직접 수출

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 수출 제품이 역내산 인정을 받기 위해 부품을 제조한 중소기업들도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까지도 FTA의 가치사슬 안에 들어와 있고, FTA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FTA는 기회와 함께 위기 요인도 동시에 제공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의 유입이 글로벌 경쟁에 뒤쳐진 우리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더욱 위험하다. 기회요인은 우리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기술 등의 해외진출 통로가 확대되며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국외로부터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희생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FTA의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들의 반수가 중국과 관련이 없어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약 1/4은 FTA 자체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내·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이미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의 효과가 보다 효율적이고 방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FTA 활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다양하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FTA의 위기와 기회 요인 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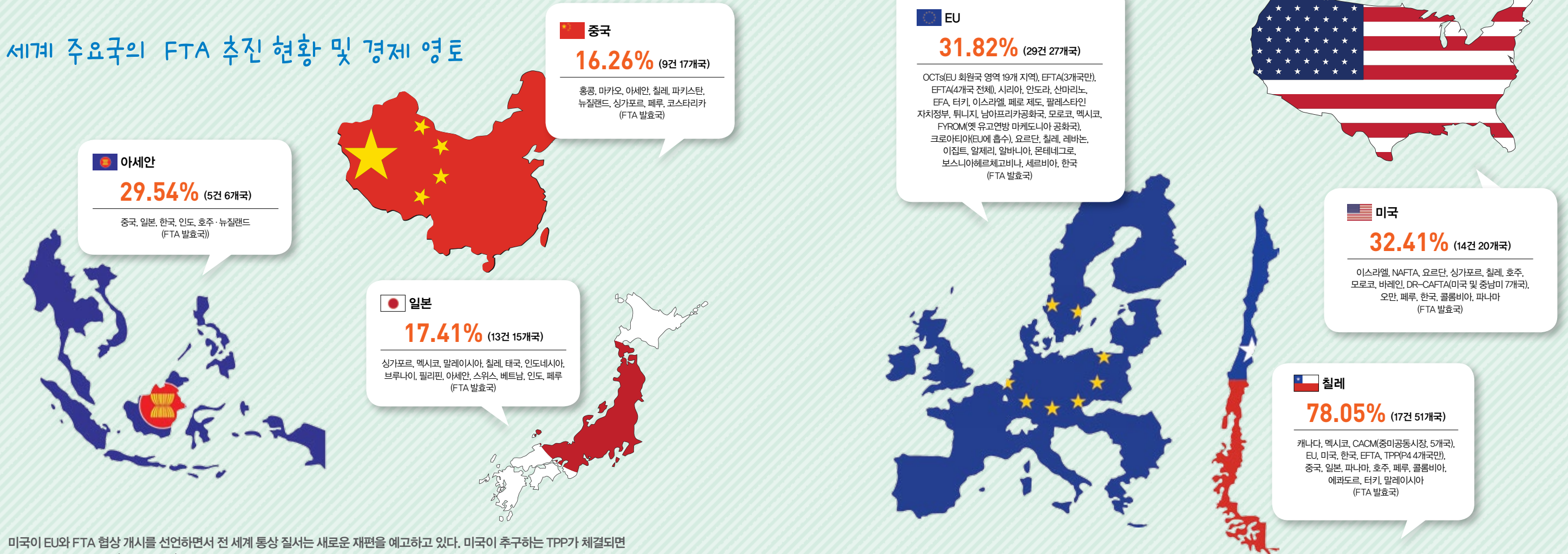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 대기업들 통한 FTA 가치사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사진은 한 대기업 방문한 협력업체들 견학 모습.

교육이 필요한 대상, 이미 수출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상,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정보와 전략적 진입 정보 등을 얻고자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대상별로 상이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의 전문화와 통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출에 집중된 FTA 지원 정책을 수입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제화 지원정책은 대부분이 수출 지원 중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로 들어오는 내향형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의 압력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 및 기술 등의 수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수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것이라면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스마트 수입(smart import)을 통해 수입경쟁력(import competitiveness)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정책 자체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최종재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관장하는 대기업의 납품업체들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간접수출은 그의 몇 배가 될 것이라는 것에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소기업 수출 제고는 근본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 지원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가치사슬 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사슬에 진입시키기 위한 기술교육과 연구개발(R&D)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경제 영토



미국이 EU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는 새로운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TPP가 체결되면 전 세계 GDP의 38.6%(일본참여시)에 해당하는 경제권이 태평양에 형성되고, 미·EU FTA가 체결되면 전 세계 GDP의 45.2%에 해당하는 경제권이 대서양으로 형성된다. 각국의 통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다자간 FTA 협상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국의 FTA 현황을 살펴보자.

글 | 이진원 기자

*경제영토란 전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Global Insight (2012년 명목 GDP 기준)

일본은 상품·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인적교류 확대 등을 강조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율이 낮아 상대국에게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어서다. 2002년 싱가포르와 EPA를 발효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 15개국과 EPA(또는 FTA)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를 맺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홍콩과의 CEPA를 발효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건, 17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 일본,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TPP 협상을 주도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중·일 FTA 협상과 RCEP 협상이 출범하는 등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세안(10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 인근 경제대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5건, 6개국)했고, 이를 바탕으로 RCEP 협상 개시 선언을 주도하는 등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를 아세안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EU, 미국 등과의 FTA도 추진했으나,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력 격차 문제 등으로 협상 추진이 난항을 겪었고, 최근에는 아세안 전체보다는 개별 국가 차원의 FTA 추진이 활발하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FTA를 발효한 데 이어

1989년 발효된 미·캐나다 FTA를 확대해 1994년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를 발효했다. 20개국과 총 14건의 FTA를 맺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를 맺지 않는 등 FTA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TPP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칠레는 51개국과 총 17건의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모두 FTA를 발효한 바 있다. TPP 협상에 참여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와 FTA 발효, 베트남과 FTA 발효 위한 국

내절차 완료, 홍콩과 FTA 공식 서명, 태국과 FTA 협상 진행, 인도네시아와 FTA 공동연구 등 아시아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EU는 과거 다자주의를 중시해 왔지만, EU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후 양자 FTA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발칸반도 등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 등 지중해권 국가와의 FTA를 중시했다. 2011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데 이어 아세안 개별국 및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에 나서는 등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FTA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땅과 물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농업 분야 사회간접자본(SOC)를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국 물 관리 사업 수주에도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다. 발달된 한국의 농업 인프라 기술은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의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 | 우종국 기자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우리의 앞선 농업 기반 기술, 해외에 알려야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농업개발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저희 공사는 농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과 ‘농지’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 양·배수장 등 전국 1만3,000여 개의 농업기반시설과 9만9,000km 농업용·용·배수로를 통해 안전영농을 뒷받침하고, 5,000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를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공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저수지 독 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 등 국가 정책사업인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개방과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경쟁력 향상과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도농교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태국정부가 홍수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물관리사업의 한국기술팀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통합물관리사업은 지난해 대홍수로 인명 및 54조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태국정부가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및 댐 건설과 하천보강 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두 개의 물 관리 전

“

한국의 농어업은 그동안 생산 위주에만 머무른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농어업으로 변해야 합니다.

”

FTA로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 과제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사진)를 완공한 경험을 토대로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에 나서는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문공기업과 현대, 삼성 등 7개 건설업체가 단일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K-팀이 현지에서 사업수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농업협력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태국 왕립관개청이 개최한 농업 SOC 및 물관리 기술교류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짧은 시간이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농업개발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은, 저개발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국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저희 공사는 1972년부터 베트남의 메콩델타홍수조절사업 등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탄자니아, 콩고, 케냐 등 25개국 105지구에서 다양한 농업기술용역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종합개발, 케냐 아웬도 식수개발 등 15개 지구에서 농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외농장을 개발하는 기업에 용자 지원, 농업개발 컨설팅, 현지 환경조사,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965억 원 가량의 용자금 지원을 바 있습니다.

한국의 농어업은 그동안 생산 위주에만 머무른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방화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농어업으로 변해야 합니다. 공사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척지의 첨단시설 조성을 통해 수출 농업을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8일, 2년 여 공사 끝에 화옹간척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유리온실을 완공했습니다. 15만 평방미터 규모로 무토양 재배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수출 규격용 선별포장시설 등 저비용·고효율의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7,000톤에 달하는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고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2월 말 첫 수확과 동시에 일본으로 전량 수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만금, 영산강 등 다른 간척지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 맺은 FTA를 통해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농업분야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외적으로 FTA가 농업의 가장 큰 과제라면,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 경영주의 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5년에는 60%, 2020년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세대 우리 농업을 짊어질 핵심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20~30세대의 창업농, 귀농인에게 5년간 최대 5ha의 농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1,106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선정자 중 1,926ha의 농지를 지원한 바 있고, 2013년 1차 지원대상자로 1,056명을 추가 선정,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EU FTA 검증 사례 분석

세번 분류, 애매하면 수입국에 확인하라

한·EU FTA가 발효 1년 반을 넘기면서 실제로 EU 측에서 검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FTA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 | 정화신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최근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 기업이 유럽의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검증요청(Verification)을 받았고, 간접 검증 원칙에 따라 우리 세관에서 검증을 실시했다. 해당 기업은 과거부터 유럽으로 수출을 지속했던 업체로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규정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체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수입국 세관에서 인증받았던 품목번호와 다른 세번(HS코드)으로 검증요청이 들어왔다.

이 업체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인증수출자를 취득했었다. 하지만 유럽 수입국에서는 다른 세번으로 검증 요청이 왔는데, 그 세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만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업체는 세번변경으로 원산지판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구성에 대해 준비가 충분치 않았고, 부가가치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상이한 세번으로 검증 요청 시 대처 방안

적잖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처 요령을 참고하면 좋다.

첫째, 세번 분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래 당사국과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수출하던 물품의 경우, 세번에 대해 둔갑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HS코드 분류 상 전혀 이견이 없는 물품들도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물품 간 융화가 심화되는 시점에 경합세번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수입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번에 대한 수입국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수입국 세관의 공식적인 분류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충분히 받아 놓아야 한다. 협력업체가 너무 많은 경우 모든 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땐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비가 큰 순서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충분히 받아 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판정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다. 한·EU FTA 협정상 많은 제품들의 선택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번변경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부가가치판정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만 판정을 했다면 가능한 한 부가가치판정에 대한 원산지를 충족하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간 세번 분류는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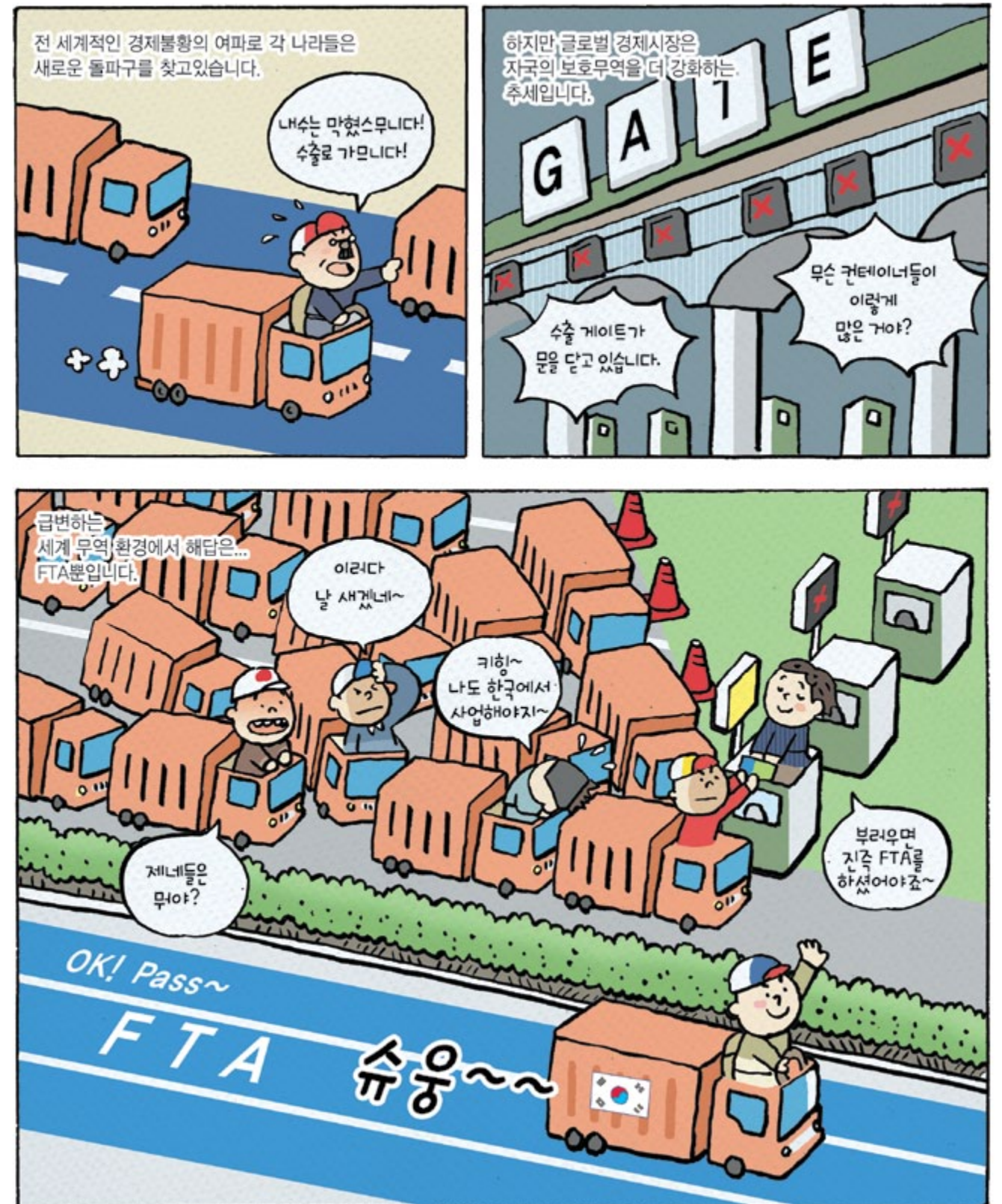
- 1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CTH)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50)

Tip 이처럼 하나의 품목에 두 가지 원산지 판정 기준이 있을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산지 판정을 해보는 것이 사후검증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위기 극복, FTA가 열쇠입니다

안중만



FTA는 무역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충북FTA활용지원센터

해외 시장 개척단 추진...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앞장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상의 이점과 저렴한 인프라 비용으로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충북 도청소재지인 청주에 자리한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전국 FTA활용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투자사절단'을 만들어 해외시장 개척까지 나서는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충청북도 청주산업단지에는 LG화학을 비롯한 LG 계열사 5개의 사업장이 있고, SK하이닉스의 생산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오창산업단지에는 유한양행, LG화학, 제일모직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오송바이오밸리는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이다. 충북 내 중소기업의 수는 7,341개(2011년 기준)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 내 다른 3개 상공회의소(충주·진천·음성) 및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청주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해당 상공회의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넓은 지

역을 맡고 있는 청주상의는 올 3월부터 남부센터를 개소해 FTA활용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장 개척단'은 전국 FTA센터 중에서 충북센터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 베트남 지역에 수출하는 10개 업체와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올 10월 현지에서 설명회와 상담 및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회의소가 주선하게 되면 현지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1년 9월 개소한 충북센터는 2011년 173건의 상담과 15개 업체의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FTA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총 3,928건의 상담과 15개 업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김형균 부장의 FTA활용 팀

1 사전에 준비하라

대기업은 FTA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담 인력이 없고 한 사람이 3~4가지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 FTA 업무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30분 만에 모든 지식을 전해줄지 못한다. 사전에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잘 들어야 한다.

2 무료 컨설팅을 활용하라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다. '귀찮다' '회사의 비밀이 드러날까 우려되다'는 이유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걸 꺼리는 경우가 많다.

3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FTA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없는 형편인 만큼, FTA 활용 시 '이거 누가 하지?'라며 헤매는 경우가 많다. FTA의 경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구매·생산·수출·회계 부서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 미리 이런 유기적인 협동 체계를 만들고 역할을 분담해야 추후 사후검증 때까지 헤매지 않을 수 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의 활용 우수 사례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도 FTA 활용해 원가 절감

CASE 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

충북 진천에 있는 A사는 직원 120명, 매출 320억 원(2012년)의 주문형 기계부품 제작업체로 의뢰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다. 이 회사는 체코에 자동차용 에어컨 밸브를 잡아주는 핀을 제작해 수출하고 있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충북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에 착수한 충북센터는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부터 재검증을 했다. 그간 A사는 수출필증에 '에어컨 부분품(HS코드: 8414.90)'으로 기재하고 있었는데, 사후 검증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 에어컨을 구성하고 있는 밸브의 구성 부분품(HS코드: 8481.90)'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한·EU FTA 협정관세에 따라 2.2%이던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품목으로, 충북센터는 A사가 인증수출자(EURO 6,000유로 이상 수출자에 해당) 지정을 받도록 조언했다. 수출 비중이 매출의 20%이던 A사는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비중을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 미국과도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CASE 2

건설용 코팅재 전문 제조업체 B사

충북 청주에 위치한 건설용 코팅재 전문 제조업체 B사는 직원 20명, 매출 100억 원(2012년)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최근까지 B사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해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주력시장으로 여겼던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경쟁상대인 중국의 저가 제품이 공격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었고, 또한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비상히 걸린 상황이었다.

이 때 충북FTA활용지원센터에 무료 컨설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충북센터가 분석한 결과 B사는 수출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입 시에도 관세인하 혜택을 받아 원가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코팅재 재료(HS코드: 2818.30)의 경우 한·인도 CEPA를 통해 6.5%이던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2017년에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했고, 2013년 현재 관세는 2.8%로 3.7%p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코팅재 완제품(HS코드: 3824.40)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한·아세안 FTA에 의해 기본관세 5%가 즉시철폐되어 단가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FTA활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 B사는 올해 지난해 대비 3배인 300억 원을 매출목표로 삼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너트로 세계 시장 '넘버 원' 노리는 **임진에스티**

‘일본·독일 제품과 기술로 승부’ 도전장 던져



임진에스티는 내부 스프링의
코일을 이용한 풀리지 않는
너트 '세이퍼락'을 개발해
세계 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매진한 결과다.
사진은 세이퍼락을 개발한
임영우 임진에스티 대표.

1972년 창업한 임진에스티는 지난해 매출 21억 원, 직원 13명 규모의 너트(nut) 생산 전문 기업이다. 너트는 볼트와 결합해 부품의 고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작게는 최첨단 휴대폰에서 크게는 건설, 조선, 항공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그만큼 용도가 다양하지만, 제조 과정이 단순하고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에서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름 10mm 볼트가 들어가는 일반 너트의 가격은 20원이다. 그만큼 저부가가치 시장인 것이다. 임진에스티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너트 제조업체였지만, 재료비 상승과 외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으로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임영우 임진에스티 대표는 “1980년대에 비교하면 재료비(철)는 3배 올랐는데, 너트 가격은 30~40%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임진에스티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창업주의 대를 이어 2006년부터 회사를 맡은 임 대표는 젊은 경영인답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저가의 범용 너트 대신 시장의 상위 5%를 차지하는 ‘풀리지 않는 너트’의 개발을 시작한 것. 풀리지 않는 너트는 일반 너트보다 20~30배의 가격을 받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회사명도 임진산업에서 임진에스티(스페셜 테크놀로지를 뜻함)로 바꾸며 각오를 다졌다.

볼트와 너트는 아무리 큰 힘을 주어 조인다고 해도 진동과 충격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풀리기 마련이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여주지 않으면 기차가 서고, 다리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너트를 조여주는 것이 정비·점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그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는 모두 비용이다. 이 때문에 너트 업계에서는 풀리지 않는 너트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역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첨단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FTA는 그 자체로 기업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환경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를 기업들에게 던지고 있다. 여기 작은 너트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김기남 기자

일반 너트 가격의
20~30배
고부가 제품 개발

풀리지 않는 너트로 일본제품인 ‘하드락’이 유명하다. 그러나 하드락은 두 개의 너트를 엇갈리게 조여야 해서 현장에서의 작업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임진에스티가 개발한 풀리지 않는 너트는 너트 내부에 스프링을 장착하는 방식이다. 볼트에 끼울 때는 순방향으로 저항 없이 너트가 들어가지만, 반대로 풀리려고 할 때는 스프링이 볼트에 밀착해 저항을 받으면서 너트가 빠지지 않는 원리다. 스프링을 이용한 제품은 기존에도 일본제품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스프링 돌출부위의 모양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일본제품의 경우 스프링의 돌출부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별도의 공구를 사용해야 해 현장에서의 작업이 불편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편의를 거스르는 제품은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렵기 마련. 임진에스티는 일반 공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일반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법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였다. 스프링 돌출부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구를 왼쪽(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끼운 뒤, 일반 너트처럼 오른쪽(시계 방향)으로 조여야 했던 것이다. 현장 작업자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조이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적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또다시 스프링 모양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시도한 끝에 기존 작업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도 너트를 풀리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임진에스티가 자랑하는 ‘세이퍼락(Saper Lock)’이다. 세이퍼의 ‘p’는 안전하다는 뜻의 ‘safe’에서 ‘f’를 파워를 뜻하는 ‘p’로 바꾼 것이다.




임진에스티의 세이퍼락은 국내 특허 6건, 해외 특허 4건(EU·미국·일본·중국) 등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코레일 단독 납품
계기로
세계 시장 노크

이렇게 6년이 흐른 뒤 지금은 시장에서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는 국내 고속철도의 전차선(전원 공급 케이블) 고정에 사용되는 너트는 세이퍼락으로 교체되고 있다. 새롭게 가설되는 전차선에는 세이퍼락이 쓰이고, 기존 전차선에도 정비 및 교체 작업 시 세이퍼락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3월 코레일의 ‘전차선 국산화 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면서부터다.

국내 고속철도에서의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임진에스티는 세계 무대를 노크 중이다. 임진에스티는 국내 특허 6건, 세계 특허 4건(EU·미국·일본·중국)을 보유하고 있고, PCT(선행기술조사서: 특허선점효과가 있음)를 주요국에서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 이탈리아, 인도, 터키 등에서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단계에 있고, 올해부터는 일본 전시회에도 참가해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독일 시장까지 뚫을 계획이다. 일본과 독일은 기초 기술만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다. 그만큼 기술 하나만으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이 각국과 맺은 FTA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너트(HS코드: 7318.16)는 한·EU FTA 발효 후 3.7%이던 관세가 즉시철폐됐고, 한·인도 CEPA 발효 후 10.9%이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7년에는 0%가 된다. 임 대표는 “지난해 매출 2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4년에는 100억~1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FTA 활용 최후의 수문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사후검증 대비하세요

기업들이 FTA 활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품목분류다. 세번(HS코드)이 딱 떨어지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상대국 세관에서 예상치 못한 세번으로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한다.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애매한 품목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관세 결정 업무의 전문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11월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관세평가란 ‘세율×기준 가격’에 따른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HS코드의 결정(세율)×가격 평가(기준 가격)’를 결정하는 것이다. HS코드가 확정되어야 품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관세가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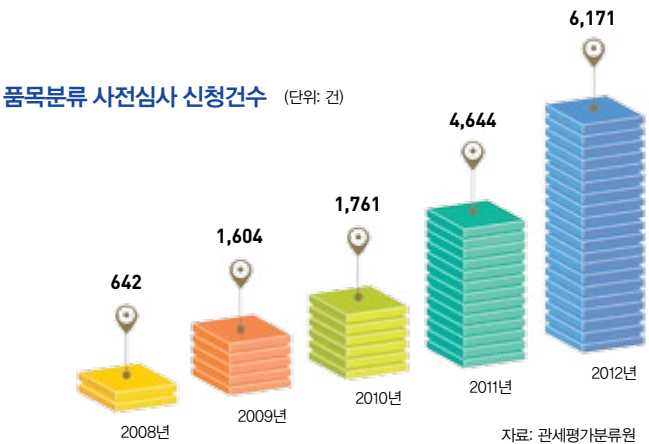
특히 FTA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HS코드 분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가 생기면서 가격 평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 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전가격을 터무니없이 작게 매기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도 관세평가분류원의 몫이다.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이 가장 바빠진 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는 무료지만, 성분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 3만 원을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품목분류에 자신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언제든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된 품목분류 관련 민원은 2008년 642건에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4,644건으로, 2012년에는 한·미 FTA 발효로 6,171건까지 늘었다. 4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품목분류 심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협의회’를 운영해 최종적으로 품목분류를 심의하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연구원, 교수, 관세사 등 38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품목분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품목분류에 자신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언제든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HS코드 정보시스템

관세평가분류원은 전 세계의 HS코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해외로 수출 시에는 국내 기업이 지정한 HS코드가 수입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31개국 약 50만 건(세계 최대 규모)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분석해 원문·영문·국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로도 찾아볼 수 있어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WCO(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및 사무국 분류 의견 등 약 34만 건의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품목분류와 관련한 국제분쟁을 분쟁국 및 물품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했다.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한 건도 없던 원산지 사전심사 서비스는 2012년 8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원산지 판정은 품목이 확정된 이후에는 비교적 간단히 되는 경우가 많고 관세사 선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 수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애매하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많기 때문에 신청 수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S국제분쟁 신고센터

HS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경우가 있다.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수출자 및 수입자가 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미리 업무상 협의를 통해 조절해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가 해결해주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출범 이후 총 20건의 분쟁을 접수해 9건의 성공타결을 이뤘고, 5건은 상대국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다. 

mini interview



이상운 관세평가분류원장 “4년 새 품목분류 사전심의 10배 늘어”

이상운 관세평가분류원장(57)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출범하기 전부터 관세청에서 관세평가 업무를 맡았고, 서울본부세관 수입과장, 관세청 국제조사팀장을 지내는 등 관세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 지난해 1월부터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맡고 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이 굉장히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의 신청은 2008년 642건에서 2012년 6,17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60건(2008년)에서 294건(2012년)으로 5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아져 하루에 1인당 2~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품목분류과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HS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라는데 왜 국가별로 이견이 생깁니까.

실사례를 들면, 전화기에서 액정만 없는 본체가 수출되는 경우에 이를 휴대폰으로 봐야 하는지, 휴대폰 부품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별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합세번의 관세를 차이가 큰 경우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FTA 활용 관련 조언을 해 주신다면?

FTA에 대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요성을 몰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사후검증이 들어오면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 품목분류 사전심의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수출 시에만 품목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 시에도 품목분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놓아야 합니다.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수상자들의 FTA 난상토론 “막연한 반대는 적극적 소통으로 극복해야”



지난해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2회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인 발러(Valor, 서울대)와 폭스테일(Foxtail, 성균관대)이 만나 FTA를 주제로 솔직 토크를 가졌다. 두 팀 모두 FTA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갖춘 만큼 FTA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회·정리 | 우중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사회자 FTA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20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팀 모두 이름이 독특한데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발러(오주연) 음, 발러(valor)는 스페인어로 밸류(value)를 뜻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중남미 전문가이시고, 저희 두 명 다 스페인어를 공부했는데, FTA를 밸류 애드(value add: 가치를 더한다는 뜻)하자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폭스테일(김다현) 폭스테일(foxtail)은 여우꼬리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우꼬리(fox tail)가 아니라 강아지풀이라는 뜻입니다. 강아지풀이 여우꼬리처럼 생겨서 그런 뜻이 있는데요, 강아지풀이 사람을 간지럽게 만드는 것처럼, FTA 관계자끼리 웃으며 행복지지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사회자 독특하네요. 이름에 담긴 뜻이 FTA에 대한 팀원들의 평소 생각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럼 공모전에 제출한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들어볼까요?

발러(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남미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칠

레 FTA의 교두보 역할에 대해 분석했어요. 칠레는 한국이 중남미에서 처음 맺은 FTA이고, 한국도 칠레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FTA거든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 실제로 교두보 역할이 이뤄졌는지를 지리적 위치, 교역량 등으로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 한국은 칠레 이후 페루(발효)와 콜롬비아(서명)와 FTA를 맺는 등 거점효과가 있었구요, 칠레도 중국(상품·서비스 발효), 일본(발효)과 FTA를 맺었습니다. 또 한국과 칠레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주변국들의 FTA를 가속화시키는 도미노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폭스테일(김)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FTA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주제로 잡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 뭔지 고민했어요. 한·중 FTA의 필요성은 수요공급모델과 중력모형으로 입증했고, 게임이론으로 한국이 중국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도출했어요. 결론은 한국은 강경하게 나가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이 TPP를 통해 아시아로 무역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FTA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로 수혜를 입는 품목에 법인세를 더 걷어 피해를 보는 품목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자 대학(원)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셨네요. 그럼 논문 대회를 준비하면서 FTA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발러(오) 저는 최근에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쓴 ‘김현중, 한미 FTA를 말하다’는 책을 읽었어요. 지난 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FTA는 경제 이슈로만 생각했는데, 외교적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협상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인데 그게 통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까지 연결되는 등 넓게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러(하주형) 저는 사실 논문 대회 전에는 아예 FTA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죠.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글로벌 시대이니 막을 수는 없지만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폭스테일(정예나) 저는 학부수업에서 국제경제학, 국제통상학을 들으면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동감해서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습니다. FTA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중 FTA의 경우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거대 시장으로 커지는 만큼 FTA 체결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논문 준비를 위해 한·중 FTA의 실익을 비교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스테일(김) 저도 예나처럼 통상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FTA가 쉬운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을 서로 주고받으면 양국이 이익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FTA와 관련해 자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협상



“FTA는 경제 이슈로만 생각했는데, 외교적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Valor 오주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2학번



“FTA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큰 것 같아요.”

Valor 하주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2학번



“FTA는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에게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Foxtail 정예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0학번



“논문을 쓰면서 FTA와 관련해 자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Foxtail 김다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0학번

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결방안을 세운 뒤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군요. 폭스테일 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반대의 입장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현재 FTA를 추진하는 정부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발러(오) 지금 한·중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익을 계산할 때 단기적으로만 봐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IT에서 우위를 갖고 있고 한류 때문에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지만, 10년 뒤 한류가 없어지고 중국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면 우위가 없어지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러(하) 많은 사람들이 FTA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FTA에 대한 정보를 못 접하니,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 아닐까요. 그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채 FTA를 추진하다 보니 잘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폭스테일(정) FTA는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발러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국민에게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한·중 FTA에서 우려되는 농업부문에 대해 나왔더라고요.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폭스테일(김) 저희 논문에도 보면 중국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한·중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어요. 한·미 FTA 사례를 보면 기술 차이가 나도 한국이 꼭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중 FTA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은 중국과 문화가 비슷해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럼 앞으로도 더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아가 한국의 통상 분야에서 다들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

수입과일 바이어

임영호 이마트 신선담당 과일 카테고리 과장

전 세계 누비며 과일 수입...
FTA 맞아 상종가

FTA로 가장 바빠진 직업 중의 하나가 수입과일 바이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수입과일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농장을 방문하는 일이 다반사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니 부러울만도 하다. 수입과일 바이어라는 직업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이마트 ‘신선담당 과일 카테고리(부서명)’에서 수입과일을 맡고 있는 임영호 과장(40)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물품이다.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니 흔히 생각하는 해외여행과는 완전히 판판이다. 대개 농장들은 도시와는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 햇빛이 좋고 기온이 뜨거운 곳이 많아 해외출장을 한 번 갔다 오면 피서를 갔다 온 듯 짐계 그을리는 일이 다반사다.

오지를 방문하다보면 때론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 파인애플 수입을 위해 필리핀의 외진 섬을 방문할 때였다. 납치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곳이다 보니 가이드(guide)를 빙자한 가드(guard) 2명이 늘 따라다녀야 한 적도 있다.

임 과장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이마트에 입사한 이래 줄곧 과일과 인연을 맺어 왔다. 입사 직후 5년 간은 ‘신선(농·수·축산물)’ 매입 기획 업무를 맡았다. 2006년부터는 청과팀에서 국산과일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됐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산되는 과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었다.

2010년부터 수입과일을 맡았다. 수입과일 바이어가 하는 일은 국산과일 바이어와 똑같고, 장소만 국내가 아닌 해외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해외 소싱을 위해서는 국산 과일 소싱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야 하고, 외국어 실력과 해박한 세계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

수입과일을 들여오는 바이어로서 그는 FTA가 한국 농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선 관세 인하로 가격이 저렴해진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온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2012년 체리 소비량이 전년보다 70%가 늘었습니다. 또 한국 소비자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과일을 들여오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가 비싸서 한 번도 먹지 못한 소비자가 저렴한 수입산을 먹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국내산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커지면 국산 블루베리의 소비도 늘어나 국내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과일 바이어는 전 세계 과일 생산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일이다. FTA 시대를 맞아 더욱 바빠진 직업 중의 하나다.



지난 2월 21일은 국내 업체인 디섹과 미국 업체인 나스코가 공동으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현장컨설팅을 받는 날이었다. 센터의 이민선 관세사와 유종민 관세사는 서울에서 디섹의 본사가 있는 부산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방문했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FTA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동 컨설팅의 내용을 들어보았다.

글 사진 | 우종국 기자

지상중계 한국 업체 디섹과 미국 업체 나스코의 FTA 공동 컨설팅 현장

바이어에 실익 강조하기보단 신뢰 주는 것이 중요

부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디섹(dsec)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로 사명은 ‘Daewoo Shipbuilding Engineering Company’의 약자다. 조선소에 필요한 설계, 자재, 물류, 품질확보 등을 제공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다. 자재사업팀 최병호 전문위원은 “공장만 없는 조선업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객사인 나스코(Nassco)는 방위산업체였지만 자국 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선박 제조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디섹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스코는 한·미 FTA 활용 여부를 타진하는 단계로, 컨설팅 이후 본사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섹과는 1차로 현장컨설팅이 이뤄진 상태였으므로, 이민선 관세사가 먼저 지난 컨설팅을 토대로 디섹의 FTA 활용 가능성과 이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나스코 입장에서는 처음 컨설팅을 받는 것이므로 FTA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쏟아져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장비가 수입될 때 각각의 장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가 모두 필요한가, 아니면 한 장만 필요한가(나스코)?” “파이프처럼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고 사이즈만 다를 경우는 C/O는 한 장만 있으면 되지만, 장비의 경우는 모델별로 들어가는 재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C/O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이민선 관세사).”




▲디섹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컨설팅에는 디섹의 자재사업팀 임직원 7명과 나스코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컨설팅은 편의상 한국어로 진행됐고, 나스코 직원 중 한국계인 구매기획 담당 선 김이 루시 길버그 구매 디렉터(여)에게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TA 적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 작업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KR’ 표시만 하고, 그 서류를 보관만 하면 된다(유종민 관세사).”

“미국 업체라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디섹이 모든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괜찮으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오는 서류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선 김).”

나스코의 구매 담당인 루시 길버그 디렉터는 FTA 활용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국 내 모든 협력사가 필요한 입증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우리가 5년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 FTA 입증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업계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아무도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루시 길버그).”

나스코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로펌 등의 자문을 구한 뒤 FTA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날 컨설팅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사후검증까지 고려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
한·미 FTA는
직접적인 교역
증가와 무역수지
증가 외에도, 한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쌓은
경험은 한·EU
FTA를 체결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



한·미 FTA 1주년의 평가와 과제

글로벌 위기에도 FTA 효과 견고했다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FTA가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한국 수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악화 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으로 수출환경 역시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이를 통해 무역 8강, 수출 7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글 | 산업설 기자

4.1%.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연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585억2,455만 달러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평균보다 한국이 더 우수한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2012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한 액수는 433억 4096만 달러로 2.8% 감소했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는 자연스레 대미 무역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51억8,359만 달러로 전년 116억3,867만 달러보다 30.4% 증가했다. 대미 무역 수지 순위는 2011

년 4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대 중국, 대 홍콩에 이은 3위다.

무역 규모도 커졌다. 수출량과 수입량을 합한 전체 무역량은 2012년 1,018억6,552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약 11억 달러(1%) 증가했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교역량 늘어…대미 무역수지도 증가

2012년 대미 수출 품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재경

위기에 따른 유럽연합(EU) 시장 침체, 중남미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012년 대미 완성차 수출량은 108억3,30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2%의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자동차 부품 역시 56억4,239만 달러로 12.4% 성장이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의 선전으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 600억 달러를 돌파, 617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중국 긴축 기조 강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중국 및 대유럽 수출이 부진했던 일반기계는 대미 수출이 호조를 띄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한·미 FTA를 통해 즉각 관세 철폐라는 날개를 단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기계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를 더 크게 받기도 한다. 2012년 대미 기초산업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585억2,45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산업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16.5%가 늘어난 32억1,004만 달러였다.

한·미 FTA 효과는 비단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일반기계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수출이 늘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섬유류 대미 수출은 14억86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의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섬유류 수출은 대중 수출의 급감으로 2.1% 감소한 155억 9,523만 달러로 집계됐다.


동아시아와 미국의 FTA 경쟁에 불 붙여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2012년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66%로 한·인도 CEPA(17.7%), 한·아세안 FTA(3.5%)의 발효 1년차 활용률보다 높다. 특히 수출을 선도한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류 등의 활용률이 특히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중견 기업이 많이 분포한 이들 업종의 FTA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한·미 FTA가 국내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 FTA는 직접적인 교역 증가와 무역수지 증가 외에도, 한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겪은 경험은 한·EU FTA를 체결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과 FTA를 맺지 못한 중국, 일본을 FTA 협상에 나서게 해 현재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 또한 한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FTA 효과를 경험한 뒤 현재 TPP와 미·EU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는 이런 전 세계적 FTA 경쟁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한·미 FTA 활용에 자신감을 가진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선진국 환율 약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 약세(엔·달러 환율 상승)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환율 변화와 수출입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엔·달러 환율 1% 상승(엔화 가치 하락) 시 우리나라 수출은 0.73% 감소했고 수입도 1.1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율 갈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몇몇 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율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변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FTA 수입 물품의 왜곡된 유통구조도 시정해야 한다. FTA 체결로 수입 물품 가격이 대부분 낮아졌지만 일반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FTA의 과실을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병행수입 활성화(유모차·소형가전), 공동구매 확산(과일·가공식품),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 및 소매판매 활성화(와인·맥주)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EU FTA 협상으로 본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 제조업·수출 강화 위해 팔 걷었다

미국이 EU와의 FTA 협상을 선언했다. 미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아시아 시장을, 미·EU FTA를 통해 유럽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려 하고 있다. 이미 한·EU FTA,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중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 |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경제학 박사)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체계의 판도가 재편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을 조속히 완료하고, EU와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정이라는 일명 FTA 추진을 천명했다. 특히 그간 가능성이 낮았던 미국과 EU 간에 FTA 추진은 글로벌 통상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양자간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시기는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소극적이었던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FTA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칠레, 싱가포르, 호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과 FTA를 타결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FTA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즉,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FTA는 없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국가나 칠레,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2009년에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를 위해 부시행정부에서 체결되었던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의 FTA를 비준하였고, TPP를 추진해 아·태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시행정부 때 타결되었던 3국과의 양자간 FTA를 모두 완료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부시정부와는 차별화된 FTA정책을 추진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간 FTA보다는 다자간 FTA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우선 순위는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국의 경제성장이다. 이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 TPP로, 미국은 최소 2016년까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태 지역에서 무역·투자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이 G2로 불리는 세계패권시장에서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미·EU FTA, 국제교역 패러다임 변화 예고

오바마 행정부 통상정책의 전환점이었던 TPP와는 별도로 미국은 EU와도 TTIP라는 일명 미·EU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말 양측은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부진 탈피를 위한 경제적 이유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EU FTA 협상은 금년 6월 중에 개시하여 201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정치 및 경제계가 FTA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협상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과 EU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의 30%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측 간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통상질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미·EU FTA에 규제 이슈와 글로벌 통상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면, 그 내용에 따라 글로벌 규범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측은 농업이나,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국 및 유럽의회, 그리고 EU 27개 회원국의 의회 비준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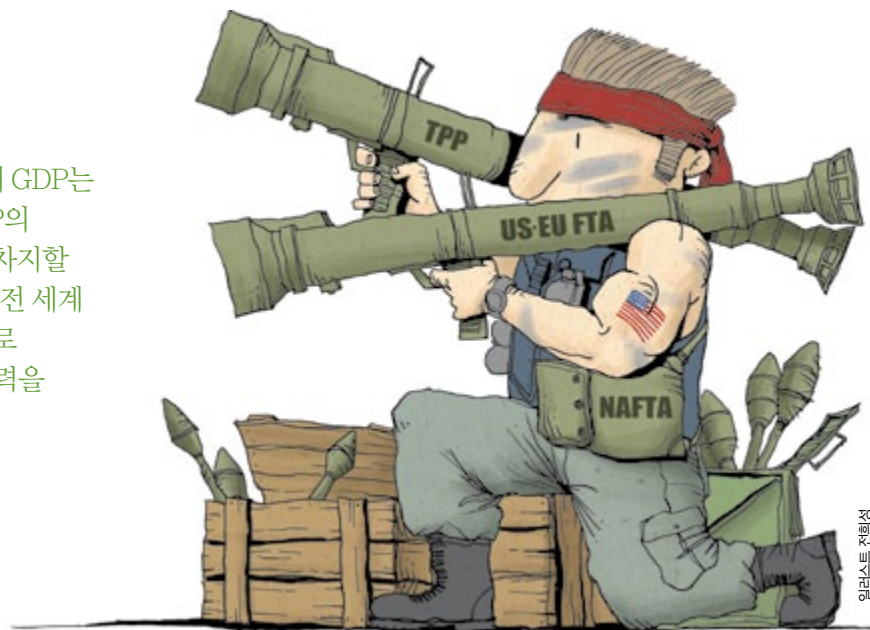
오바마 2기,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정책은 보다 강화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관련 정부서비스의 간소화, 미국 이전기업 세제 혜택,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14년까지 수출 2배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 부시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양자간 FTA를 완료하였고, TPP와 같은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는 1기에서 추진하였던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인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TPP, 미·EU FTA를 지속적이면서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한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의회가 직접 통상정책을 결정하지만,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행정부 통상협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회가 정책결정의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통상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EU FTA 타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한다. 만약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양대 경제권간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산업에 따라 직간접 피해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EU FTA의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 EU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7]

“
미국과 EU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의 30%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미국에서 맞이한 한·미 FTA 1주년

문턱 높던 미국 정부조달 가능성 높아져

3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FTA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양국이 애초 의도했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다. 처음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도 이제는 높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현지에서도 한·미 FTA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미국 현지에서 겪은 지난 1년 간의 한·미 FTA를 돌아보았다.

글 | 윤재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장

미국의 수도이자 연방정부가 소재한 워싱턴 DC에서도 한·미 FTA의 효과는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처음 반 년 간 KOTRA(코트라)를 비롯한 주재원 및 지·상사 직원들이 상무부 등 주요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미국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면, 뒤의 반년은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였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느린 내수경기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미국 기업들이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과 양국 간 교역 증대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무역위(US ITC)에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이나 미국의 민간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한 것 또한 역으로 보면 한국이 그만큼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관계자들, 한·미 FTA 주시하기 시작

실제로 FTA 발효 100일 즈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개최했던 '2012년 한미 정부조달 파트너십' 행사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바이어들 중 양국 간 FTA 발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 한·미 FTA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행사에 참여한 한국 업체들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바이어들의 반응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조달 분야의 경우 주요 연방정부 기관들과 주·지방정부에 양국 간 FTA가 발효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정부조달분야에서 FTA의 협정문



미국 상무부 전경.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안내하는 공문이 배포, 이제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한국 업체의 정부조달분야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한 정부조달 컨설턴트 역시 록히드마틴 등 대규모 방위산업체들부터 연방조달청(GSA)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물품의 조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미국 내 바이어가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최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즉시, 또 한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FTA는 그 자체로 성공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 1주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조달과 같이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판로를 개척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공략,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 1주년 맞아

9,000건 이상 상담, FTA 애로해소 성과 뚜렷

글 | 이현주 기자 사진 |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의 FTA활용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가 2월 21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그간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한국무역협회, KOTRA(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KTNET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FTA활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임 컨설팅 500건 수행 등 기업 밀착 지원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9,000건 이상의 FTA활용 상담을 처리하고, FTA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 사후검증 대응까지 500여 기업에 대한 책임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중소 수출업체들의 FTA활용 애로 해소를 위한 밀착지원을 전개했다.

또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고 FTA활용 통합정보 시스템(okfta.or.kr)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업계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사례 및 활용전략 등을 발굴해 기업들이 손

쉽게 FTA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처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결과, FTA 활용 지원 사업의 수혜업체 70%가 FTA원산지증명(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원산지증명 관련 애로가 점차 완화되었으며, 우리나라 FTA 수출 활용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무역업체들이 해외바이어의 FTA 활용 인식 부족과 사후검증 대응 방법, 전담인력 부족 등 FTA활용 관련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이 EU와의 FTA 및 TPP를 동시에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세계 통상 질서가 FTA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박태성 단장은 “국내 시장의 70배인 69조 달러의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업계의 FTA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사후검증 대응 및 교역국의 FTA 활용에도 관심을 갖는 등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FTA활용 지원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활용 탐구생활 – 부가가치기준의 모든 것

‘공제법’이 가장 간단, 유럽은 MC법 따라야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달리 복잡한 가격 산정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이 맺은 FTA 협정에서 대부분의 품목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품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어려울 때 부가가치기준을 따져볼 수 있다.

글 | 이용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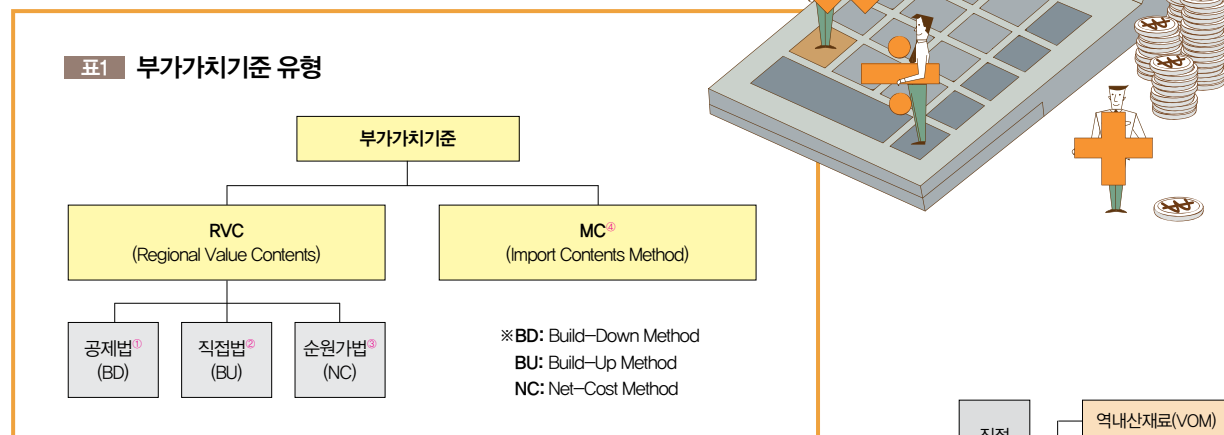


표2 단계별 원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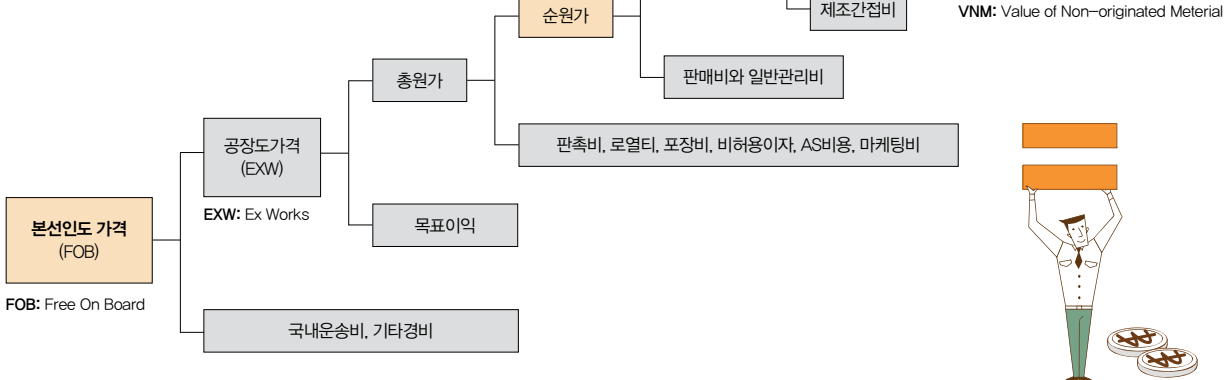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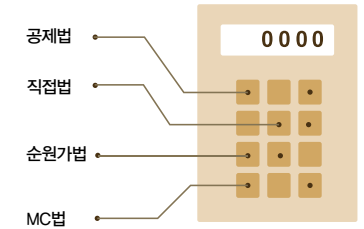


표3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구분	싱가포르	인도	칠레	아세안	미국	EFTA	EU	페루
부가가치 요건	RVC(45~55%)	RVC(25~40%)	RVC(45~80%)	RVC(35~60%)	RVC(35~60%)	MC(30~60%)	MC(20~50%)	RVC(35~50%)
산출공식	공제법	공제법	공제/직접법	공제/직접법	공제/직접/순원가법	MC	MC	공제/직접법
상품가격 계산기준	FOB	FOB	FOB	FOB	FOB	EXW	EXW	FOB

활용 Tip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제시한 경우, 간단한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후검증 시 전혀 다른 세번(HS코드)으로 검증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부가가치기준까지 입증해 놓는 것이 좋다.



1. 공제법(B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FOB} - \text{역외산 재료가격(VNM)}}{\text{FOB}} \times 100$$

공제법은 상품가격(FOB)에서 역외산재료(VNM)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법에서 'RVC 35%'라면 역외산재료가 65%를 넘지 않으면 충족시키게 된다.

표2에서 보듯이 상품가격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역외산재료만을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인건비, 물류비 등의 비중이 높은 상품에 유리하다. 참고로 RVC에서는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 가격으로 한다.

2. 직접법(BU)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역내산 재료가격(VOM)}}{\text{FOB}} \times 100$$

직접법은 상품가격(FOB)에서 역내산재료(VOM) 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직접법에서 'RVC 35%'라면 역내산재료의 가격이 35%를 넘어야 충족시키게 된다. 이 경우 역내산재료를 제외한 생산비용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인건비, 물류비 비중이 높은 상품이라면 불리한 방법이다.

3. 순원가법(NC)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 - \text{역외산 재료가격(VNM)}}{\text{순원가}} \times 100$$

순원가법은 공제법과 방법이 비슷하나, 기준되는 가격이 상품가격(FOB)이 아니라 순원가가 되는 점이 다르다. 순원가에서 역외산재료(VNM)를 뺀 나머지가 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한·미 FTA에서만 사용되며, '자동차 및 그 부품'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순원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로열티 등 판매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FTA이전에도 다른 국가와 FTA 체결 시 해당 산업에 한해서 순원가법을 고수하고 있다.

4. MC법(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text{비원산지 재료비율} = \frac{\text{역외산 재료가격(VNM)}}{\text{공장도 가격(EXW)}} \times 100$$

MC법은 역외산재료의 최대 함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타의 제조경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RVC의 공제법과 유사하다. 다만 상품가격의 경우 RVC에서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MC법에서는 공장도가격(EXW)을 사용한다.

한·EU FTA, 한·EFTA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으로 MC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그간 맺어온 FTA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FTA

News

정리 | 이현주 기자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

한국의 10번째 FTA 파트너, 조기 발효 추진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1일(목)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과 한·콜롬비아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콜롬비아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6월 25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때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고, 8월 31일 가서명한 바 있다. 이후 번역 및 검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정식서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콜롬비아 FTA 서명을 계기로 47개국과 10건(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8건이 발효 중(터키, 콜롬비아는 미발효)이다. 콜롬비아는 총 59개국과 12건(안데안 공동체, 멕시코, CARICOM, 쿠바, MERCOSUR, 칠레, 미국, 노던 트라이앵글, 캐나다, EFTA, 베네수엘라, EU)의 FTA에 서명해 11건이 발효 중(EU는 미발효)이다. 콜롬비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칠레, 멕시코, 페루와 더불어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결성을 주도 중이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 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유망 신흥시장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중으로,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일 FTA 협상 준비회의 개최

2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한·중·일 FTA 협상 준비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3국은 올해 초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의 의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영무 외교통상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FTA교섭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측은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일본측은 야스히 마사키(正木 靖) 외무성 경제국심의관 등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 협상은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2011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5월 13일 3국 정상회의 때 FTA 협상의 연내 출범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개시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3차례의 사전 실무 협의를 개최했고,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열린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었다.

2013년 대학 FTA활용강좌 운영대학 선정

전국 27 대학, 50개 강좌...실무 중심 교육 진행

기획재정부는 2월 12일 '2013년 대학 FTA활용 강좌 개설' 지원사업에 전국 27개 대학 내 50개 강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년제 대학의 상경계학과에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해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좌는 대학별로 FTA활용 현장전문가를 초빙해 FTA활용 실무 및 현장실습 위주로 강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FTA활용 기본이해, FTA협정 해설, FTA 관련 국제통상법 분야, 원산지증명 및 통관 실습, FTA활용 기업사례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수출기업·세관 등 현장방문 등의 체험학습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2013년에 강사로, 현장실습비 및 강좌운영비로 강좌당 800만~1,100만 원씩 총 5억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금년부터 수강생들이 취업 후에 바로 기업의 FTA활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대학별 지원한도금액을 상향 조정(2,000만 원→4,000만 원)해 최대 연 4개 강좌(종전 2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기존 1개 학기 위주의 강좌를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로 개편(최대 2년간 4개 학기)해 대학별 중장기 목표에 의해 FTA활용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에 앞선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FTA활용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의 부족해소를 통해 FTA활용 촉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4,464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좌 개설을 확대하여 2,580여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강의용 표준교재 개발 및 e-러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보강해 효과적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완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업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평가시스템 개발보급, 표준강의 커리큘럼 개발 등 교육인프라 지속 보강, 후속학습 프로그램 발굴 지원 및 취업연계행사 등)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세계 최대규모의 해외 관세율 및 품목분류 서비스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FTA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HS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은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을 포함한 해외 40개국의 관세율정보와 국내 품목분류사례를 비롯한 30개국의 해외 품목분류사례정보를 총 망라하고 있으며, 외국어 번역서비스 및 통합검색솔루션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무료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 특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용이해지고, 해외 관세정보를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축된 해외국가들의 관세정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교역량의 약 70%에 해당하며, 품목분류사례정보는 약 85만 건으로 세계최대, 최고의 규모라 할 수 있다. 또한, HS국제분쟁 지원프로세스를 세계HS정보시스템 내에 함께 구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조세당국과의 품목분류분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세계HS정보시스템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관세청 FTA포털시스템(ita.customs.go.kr)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가요·드라마·게임·메신저...모바일이 이끈다

스마트 세상의 새로운 힘, 모바일 한류

최근 K-팝과 한류드라마가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모바일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한류를 형성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사용빈도가 높아, '모바일 한류'를 통해 한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해외로 퍼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현주 기자 사진 | 한국경제신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K-팝도 K-드라마도 앱으로 즐긴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가요와 한국의 드라마를 즐기던 외국인들은 이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기기로도 K-팝과 K-드라마를 향유한다. 실시간으로 한국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은 물론이고, 예능·드라마·가요 프로그램·라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다시보기' 할 수 있는 앱까지 모바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유·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기 한류 가수들의 앨범을 통째로 앱으로 즐길 수도 있다.

일례로,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기 아이돌 '엠블랙'의 경우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1월, 자신들의 히트곡 5곡을 담은 '케이팝 러너' 앱 앨범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MP3 가격대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원곡 감상은 물론 자신만의 UCC 제작도 가능하고, 반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이름 그대로 스마트한 '앱 앨범'인 것이다. 엠블랙 외에도 가수 에일리나 시크릿도 앱 앨범을 출시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K-팝 가수들이 이 같은 앱 앨범 출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산 게임과 한국산 만화의 스마트한 공세

대표적인 한류 분야로 분류되는 게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산 게임 앱은 이미 수년 전부터

KAKAO TALK

현재 가장 강력한 모바일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모바일 메신저 앱 분야다. 2010년 3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은 현재 전 세계 230개국에서 12개국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그 전체 가입자 수가 7,300만 명에 달하고, 한국 가입자 수도 약 3,500만 명을 넘는다(1월 말 기준).

세계 각국에서 높은 다운로드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려 왔다.

작년만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인 컴투스의 '이스케이프더에이프'나 '타워디펜스' 등의 모바일 게임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 게임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1~2위를 다퉈,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게임 앱 10위 안에 드는 등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했다.

국내 스마트 모바일 기업 KTH가 출시한 무료 카메라 앱 '푸딩'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카메라 촬영 설정과 선명한 화질 등을 인정받으며 높은 다운로드 순위를 고수하고 있고, 일본어로 번역 서비스되어 무료로 한국의 웹툰을 즐길 수 있게 한 '네이버 웹툰'과 같은 만화 앱들은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한국의 만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대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눈부신 비상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모바일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바로 모바일 메신저 앱 분야다. 국내를 대표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이라면 역시 '카카오톡(KakaoTalk)'을 들 수밖에 없다. 2010년 3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은 현재 전 세계 230개국에서 12개국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그 전체 가입자 수가 7,300만 명에 달하고, 한국 가입자 수도 약 3,500만 명을 넘는다(1월 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사용자 수와 비교해보면, 결국 이 같은 수치는 국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고, 국내 인기 못지않게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은 늘 휴대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모바일 한류'의 영향력은 기존 문화콘텐츠보다 강력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향후 한국 문화 콘텐츠와 제조 상품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 1억 명, '라인'의 뜨거운 기세

하지만, 사용자 숫자만으로 따져보자면 현재 모바일 메신저 앱의 절대강자는 '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 '네이버'로 잘 알려진 국내 기업 NHN의 계열사인 NHN 재팬이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은 지난 2011년 6월 출시되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40% 수준인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약 4,000여만 명의 가입자를 모아 일본의 '국민 앱' 반열에 올랐다. 현재 총 230여 개국,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중 40개국 이상에서 무료 다운로드 순위 1위, 60개국 이상에서 메신저 분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체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일본, 대만, 태국 등의 아시아권만이 아닌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벌써부터 '제2의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가입자 5,000만 명을 달성하는데 트위터가 1,096일, 페이스북이 1,235일이 소요된 데 반해, '라인'은 불과 399일 만에 5,000만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한류로 기대되는 효과는 모바일 앱 자체의 수익 창출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한글 및 한국 문화, 한국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FTA가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다면, 모바일 한류는 한국의 문화영토를 넓히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강국의 실현을 통해 선진국이 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

수출 강국들의 세계 1위 수출 품목 수는 몇 개?


1위 품목 수 꾸준...신규 품목 발굴은 과제

글 | 우종국 기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매출액 기준) 품목 수는 총 61개로 집계됐다. 반도체, 철강,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전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유지한 품목은 45개였으며, 16개 품목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신규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년 세계 1위였던 26개 품목은 중국 등 경쟁국에 추월당해 한국의 전체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0개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2위 품목은 전년 대비 15개 증가한 124개로 나타나, 감소를 기록한 1위 품목과 대조를 이뤘다.

한국은 2007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탕커(선박), 특수선(조명선, 소방선, 기중기선 등), 자동차 부품(기타) 등 10개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이들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한편 2011년 신규 1위에 진입한 품목은 굴, 인삼, 기타 발효주, 프로펜(프로필렌), 부타디엔 고무, 메리야스 편물, 철강제 관, 신호용 기기 등 16개였다.

현재 세계 1위 품목 수 경쟁은 중국과 선진국과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2007~2011년 중국이 꾸준히 1위 품목 수(+211개)가 늘어나는 데 비해 독일(-115개), 이탈리아(-110개), 미국(-76개), 일본(-22개), 네덜란드(-24개) 등은 꾸준히 1위 품목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개가 줄어들어 비교적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 규모 상위 10개국 대부분은 세계 1위 품목 수 기준에서도 10위권 내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세계 수출액 7위, 9위이면서 1위 품목 보유 순위는 15위, 21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은 기존 1위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성장성 있는 시장에서의 차세대 점유율 1위 품목의 발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입 규모 및 1위 품목 순위 비교(2011년)

국가명		수출 규모		세계 수출 1위 품목	
		세계 순위	수출액(억 달러)	세계 순위	품목 수(개)
중국		1	18,984	1	1,431
미국		2	14,804	3	589
독일		3	14,723	2	777
일본		4	8,226	5	229
네덜란드		5	6,610	6	135
프랑스		6	5,961	8	112
한국		7	5,552	15	61
이탈리아		8	5,232	4	230
러시아		9	5,220	21	38
벨기에		10	4,767	9	112

자료: 한국무역협회(WTO, UN Comtrade 인용)



Reader's Letters

독자의 소리

“지상중계-거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 특강”을 읽고 우리나라에 무역학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무역경제는 항상 청신호만 켜질 것 같다는 생각에 흐뭇하고 항상 그들을 응원할 겁니다.”

김석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FTA 유망 직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불황의 늪이 깊어 실업사태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FTA로 주목받는 이색 직업인 관세사와 유가 헤징 전문가에 대한 소개는 참 의미 있었습니다.”

김수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사실 몇 년 전 FTA에 관해 뉴스에서 반대하는 장면만 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함께하는 FTA>를 통해 FTA 활용, 직업 소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FTA 관련 기사를 읽고 FTA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천금미(인천광역시 동구 송현2동)

“‘FTA 즐기기-카툰’을 반갑게 보게 됩니다. FTA라면 왠지 어렵게만 생각되는데 쉬운 만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보면서 FTA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어 참 유익하네요^^”

홍석현(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도전! FTA퀴즈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을 선언한 경제공동체는?

다음 문장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답을 적으세요.

FTA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과일 바이어는 전 세계 과일 생산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일이다. FTA 시대를 맞아 더욱 바빠진 직업 중의 하나다. (난이도★)

2 한국은 지난 2월 21일 ☐☐☐☐와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6월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8월 가서명한 바 있다. ☐☐☐☐는 인구 4,600만 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유망 시장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명은? (난이도★★)

3 미국은 올해 2월 ☐☐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미·☐☐ FTA는 올해 6월부터 협상이 시작돼 201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5.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의 30%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경제공동체는? (난이도★★★)

4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관세 결정 업무의 전문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11월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현재 이 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성분 분석이 필요한 경우 3만 원) ☐☐분류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 642건이던 ☐☐분류 사전심사 건수는 한·EU FTA,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서 2012년 6,17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난이도★★★★)

5 2011년 세계 수출 규모 8위인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보유 순위는 세계 15위다.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총 ☐☐개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한 품목은 45개,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1위에 신규 진입한 품목은 16개, 중국 등 경쟁국에 1위를 추월당한 제품은 26개로, 한국의 전체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0개 감소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난이도★★★★★)

* 힌트: 제시된 숫자를 활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FQ(FTA 지수)는?

- 0개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군요.
- 1~2개 이제 FTA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 3~4개 제법이시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 5개 당신은 이미 FTA 전문가!

2012년 12월 17일 미국, 인도, 아세안 무역정보 서비스 오픈!! 무역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



TradeNAVI는

수출의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을 형상화한 브랜드입니다.



모바일서비스
오픈!!



m.tradenavi.or.kr

미국, 인도, 아세안 무역정보 서비스 내용

- ☒ **세율정보** | 기본, FTA, 감면, 할당, 상계 등 HS코드(약 31만개)별 세율 서비스
- ☒ **규제정보** | 기술규제(TBT), 환경규제, 해외인증, 수입요건, 전락물자 등 약 2만건의 규제 콘텐츠 구축 및 HS 코드와의 연계 서비스
- ☒ **지원정보** | 미국의 국가정보 및 최신 시장 동향정보 연계 서비스, 미국 수출시 꼭 필요한 사전확인 및 준수사항 안내, 한미 FTA 협정문 특별 확인 사안 6가지 설명, 미국 관세청(CBP)의 수입통관절차 상세 설명인도, 아세안 수입통관절차 상세 설명, 인도 관세 계산 시뮬레이션, 역진세율 자동 확인 서비스, 한-아세안 FTA원산지 관련, 주요 확인 사항 설명
- ☒ **업무지원 서비스** | 무역 단계별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무역정보안내지도 서비스, 세계 주요 90개국의 관세율 정보 바로가기 서비스, 43개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지원 사업정보 실시간 서비스

■ 규제 분야 및 해외시장정보 참여기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전락물자관리원, KOTRA, K-SURE, KIEP
· 향후 참여기관 및 제공정보 확대 예정

■ 2011년~2014년간 FTA 체결국 및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

· 2012년 1월 서비스 오픈(EU), 2012년 10월 미국서비스 오픈, 2012년12월(인도, ASEAN) 서비스 오픈, 2013년(중국, 대만, 홍콩), 2014년(일본)